

겨울산, 그 거대한 은빛 수목화

이 홍 철

〈한국은행자금부 금융시장실조사역·분회회원〉



난 산이 좋다. 우리 국립공원협회 회원들도 모두 산과 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느 유명한 산악인에게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산이 거기 있어서'라고 대답하였

다는 얘기가 생각난다. 아무튼 산은 참으로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다. 더욱이 우리 국립공원협회의 산행은 남다른 면이 있다.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경승지를 찾는 모임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국립공원협회가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눈 덮힌 겨울 산에 오르는 탓에 모두들 보따리가 묵직해 보인다.

방한장비며 아이젠이며 그리고 빼놓아서는 절대로 안될 새참에 이르기까지….

탐방할 등산로는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황골코스를 타고 비로봉에 오른 다음 구룡사(龜龍寺) 쪽으로 하산하는 길이란다.

두어 해 전에 구룡사에서 사다리병창을 거쳐 비로봉에 올랐던 일이 새삼 머리에 떠오른다. 국립공원이란 국립공원은 모두 다 둘러보겠노라 정열에 불타던 학창시절에도 찾아가지 못했던 치악산을 3년동안 두 번이나 오르게 되다니 정말 신나는 일이다.

누군가가 치악산에 얽힌 전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집에 돌아와서 관련 자료를 뒤져봤더니 어디선가 오래전에 읽어보았던 내용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 거들면, 옛날 옛적 한 나그네가 산에 오르다

가 뱀에게 칭칭 감겨 한 입에 꼴깍 삼켜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핑 한 마리를 발견하였더라. 불쌍한 생각에 나그네는 뱀을 활로 쏘아 죽이고 그 핑을 구해주었다. 그 날밤 나그네는 가까운 주막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죽은 뱀의 아내가 그 집 주모로 둔갑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나그네에게 덤벼들었다. 뱀이 나그네를 휘감고 하는 말이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상원사(上院寺)라는 절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거든 살려주마'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기적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다음 날 새벽에 종을 세번 쳐 그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한 나그네는 곧바로 상원사를 찾아가 보았다. 놀랍게도 종 밑에는 박치기로 종을 울리다가 머리가 터져 죽은 핑 한 마리가 쓰러져 있더라. 이같은 핑의 보은설화에 연유하여 핑을 뜻하는 '雉'자를 치악산의 '치'자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여느 산행 때와 마찬가지로 앞사람 뒤축만 따라가다 보니 어느 새 능선길에 다다랐다. 이상하게도 능선에만 접어들면 산에 다 오른 느낌이다. 발걸음도 여유롭게 비로봉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디디면서 째름이 주변을 둘러보는 기분이 짜릿하기만 하다. 때서운 삭풍이 신명나게 노래부르고 눈앞에 걸친 안경에는 뽕얇게 김이 서리니 특수효과를 곁들인 한 폭의 거대한 은빛 수목화라도... 利와 情과 慾에 찌든 범인들에게 산은 진정 좋은 스승이다. 요즘에는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던데... 그래도 우리의 치악산은 스승답게 초연히 버티고 서 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나보다. 드디어 비로봉 꼭대기에 우뚝 솟은 세 개의 돌탑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탑들을 보면서 용창중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분은 1960년대 초부터 10여년에 걸쳐 순전히 혼자 힘으로 경기도·충청도·강원도의 돌을 모아 이곳 비로봉 정상에 신선탑, 용왕탑, 칠성탑이라 불리는 세 개의 탑을 쌓아올렸다고 한다. 곰곰 생각해 보았지만 홀로 이 탑들을 세웠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어쨌든 그는 빈 몸으로도 오르기 어려운 이 험준한 산을

무겁디무거운 돌무더기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튼튼한 석
탑을 세 개씩이나 쌓았단다.

아마도 수천 번은 오르내렸으리라. 나는 용창중씨 때문에 치악산을 더
좋아하게 될 것만 같다. 한 인간의 집념과 땀이 배어있는 돌탑 앞에서 문
득 숙연함을 느낀다. 한 인간의 정신력과 정성이 깃든 이 탑들 앞에 서있
노라니 무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온 몸을 감싼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
은 거칠건만 마음은 평온하기만 하다. 용창중씨가 해내고 말았듯이 나도
벌떡 일어나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다.

비로봉 밑동에 임시로 설치된 천막대피소에서 차가운 주먹밥에 따끈한
정종 한 잔을 곁들여 그야말로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요기를 마쳤다. 기
본육구를 채웠으니 이제 슬슬 내려가 봐야지...

구룡사로 향하는 길은 기나긴 내리막길이었다. 누구나 내리막길은 쉽고
오르막길이 어렵다고 말하겠지. 맞는 얘기다.

모든 조건이 같기만 하다면 말이다. 흐느적대는 두 다리와 뽕뽕 다져진
눈길, 가파른 경사, 눈 속에 감춰진 돌부리 그리고 군데군데 살얼음판 등
등 악조건속이었지만 새로 장만한 아이젠은 제몫을 톡톡히 다 해주었다.
두 시간 남짓 걸려서 구룡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아빨싸 거기서 그만
미끄러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치악산 신령님은 내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이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비하는 자
가 되라고! 참으로 유익하고 유쾌한 산행이었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오늘 국립공원협회로부터 또 하나의 산행계획을 통
보받았다. 3월15일 수덕사(修德寺)가 있는 덕숭산에 간다. 참석하겠다고
흔쾌히 약속하였다. 이번에는 힘든 산이 아니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딸 아이를 데리고 가야겠다. 하루빨리 이 녀석을 산과 들의 아름다움
을 찬미할 수 있는자연인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